

키르기즈 공화국의 디폴트선언 임박 보도와 관련하여

(2000. 1. 4)

해외경제연구소

□ 보도자료 내용

- 99년 12월 28일 BBC Monitoring Service와 12월 29일 Reuters는 12월 28일자 러시아의 Interfax news agency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키르기즈 공화국의 99년말 현재 외채규모가 12억 6,600만 달러로 1999년 GDP 9억 7,800만 달러(잠정)를 넘어 디폴트 가능성이 임박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디폴트 보도와 관련, Amangeldy Muraliyev 수상은 12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디폴트는 국가파산과 다름이 없어 대외신용도 추락, 국민경제 위축 등 막대한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대외채무상환을 위해 2000년 예산의 40%인 8,360만 달러를 배정하여 상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 최근 경상수지 및 상품수지 동향

- 키르기즈 공화국의 99년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7,500만 달러(추정치)로 98년 2억 2,100만 달러에서 크게 축소되었으나, 아직 경상수지 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99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의 12%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98년 GDP의 22%에서 크게 감소한 것임. 그러나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동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음.
- 동국은 CIS국중 몰도바와 더불어 러시아의 외환위기 및 금(주 수출품) 가격 하락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임.

□ 대외채무구조 및 채무협상 현황

- 동국 대외채무 중 80% 이상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매우 양호한 조건으로 차입된 것임. 99년 초 터키와 러시아로부터 각각 7,500만 달러, 1억 3,200만 달러의 채무상환을 유예받은 바 있음.
- 동국은 현재까지 IMF로부터 Som貨 안정 및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총 2억 2,700만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으며, 99년 11월말 현재 잔액은 1억 9,200만 달러임. 또한 확대구조조정차관 1억 달러(인출가능 : 5,900만 달러)가 집행중에 있음. 동국은 2000년 예산확보를 위해 IMF로부터 7,500만 달러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교섭중임.
- 동국은 현재 많은 다자간/쌍무간 대외채무상환 유예협상을 벌이고 있음.

□ 향후 전망

- 현재 동국의 외채규모가 GDP를 초과한 점으로 보아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편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동국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언론보도를 현재 진행중인 러시아와 파키스탄과의 채무상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 마련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음.
- 동국의 외채상환 능력은 무역관계 정상화에 크게 좌우됨.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외채상환 능력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키르기즈 공화국과의 교역규모는 2,913만 달러 (98년 기준)이며 99년 1~11월중 키르기즈 공화국에 대한 수출은 2,265만 달러로 98년 동기대비 5.4% 감소하였고, 수입은 35% 감소한 5만 달러에 이르고 있음.